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오가는 가정들의 안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아주신 총회주일 헌금은 총회로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 개정에 관한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연합모임은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변경하여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7 호

2021년 9월 19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응크따를 뜻하는 '한', 한가위와 하나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지만 사실상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연휴로 생각하고 있다.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음력 팔월 보름날을 말한다. 추석(秋夕), 중추절(仲秋節), 한가위 등으로 표현된다. 그중에 순우리말인 한가위가 더 정감이 느껴진다.

한가위라는 말은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한가위는 가을, 혹은 8월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이다.

우리나라 말인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음은 하나로 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한가위에 나타나는 '한'이다. 좀 더 옛말을 살려 표기하자면 '훈'으로 표기 할 수 있다.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같은 대략의 뜻을 가진 관형사로 쓰일 수 있고 명사 앞에 붙어 큰, 정확한, 한창인을 뜻하기도 하며, 바깥, 끼니때 밖을 뜻하기도 한다.(우리말샘 '한'검색)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이 '훈'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 성경이 먼저 번역된 중국에서는 천주(天主) 혹은 신(神)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또 상제(上帝)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 하느님으로 채택되어 하느님 혹은 하나님으로 사용되었다. 언더우는 선교사는 이러한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상제, 여호와, 참신, 텐주, 상주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느님과 텐주가 공존하여 사용되다가 게일 선교사와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주시경 선생으로 하여금 하느님으로 단독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하느님의 용어를 선택하게 된다는 우리말인 한글이 뜻하는 의미를 말해주는 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선교와 섬김**

큰 한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먹성하네, 한노래하네 등 그 부분에서 최고를 칭할 때 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큰 한분이라는 뜻에서 주(Lord)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창조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천지의 주관자를 말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1466)이후에 한글은 유교질서와 한자에 억눌린 문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성경번역에 관해서는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특별한 경우의 나라였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보게 되었고 한글로 번역된 것이 당시에 아녀자와 백성을 염두에 둔 성경번역이었다. 이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었던 한글을 대중화하는데 성경이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띄어쓰기를 들 수 있겠다. 한글은 본래 띄어쓰기가 없이 붙여 쓰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나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하는데 있어 1877년 존 로서의 목사에 의해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서 시작되었다.

한가위는 추수의 계절로 즐거움을 주는 명절이다.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만큼이나 마음이 넉넉해져서 마음도 따뜻해진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 정도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번 추석 거리두기는 약간의 예외를 두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경우 추석 가족모임 인원은 8인까지 허용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한가위에 누리는 결실과 마음을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더불어 한가위의 한과 하나님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주간의 말씀

“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  
<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86편

제목 :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소시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93 401 453 484

### 1. 내용관찰(What)

- 1)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 간구합니다.
- 2)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 2. 내용의 의미(Why)

- 1)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 2)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 1) 더욱 탁월하시며 바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 2)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남의 시간을 보냅니다.

##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말해야만 합니다.

침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써 저를 창조하셨고,

죄의 길로 빠졌던 저를 사랑으로 회복하셨고,

사랑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대해 저를 가르치십니다.

오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시여,

주님께 걸맞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제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야,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저를 밤낮으로 섬기시는 주님께 제가 무엇으로 섬긴다 하겠습니까?

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 (1379-1471)

-네델란드의 신학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42 : 1-5	인도자
* 예배의 찬송	524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갈라디아서 5 : 1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391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열왕기상 19 : 1 - 18	설교자
성가대 찬양	325	사랑방
설 교	“ 엘리야의 동굴, 외로움의 동굴 ” 정태일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36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55(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윤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자연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멘.

## 엘리야의 동굴, 외로움의 동굴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가장 나쁘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아합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 그의 바알신앙을 허용하고 자신도 바알을 숭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 가뭄으로 징계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유다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4> 강한 사람 엘리야가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의 동굴, 외로움의 동굴.      엘리야는 왜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머무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9> 엘리야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10> 그리고 이 대화는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됩니다. <13, 14> 엘리야의 대답에서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말은 그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약하게 된 것은 ‘외로움의 동굴’에 갇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현대인,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동굴, 외로움의 동굴이 있습니다. 만남과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답답함과 그리움에서 더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싸이코패스 형상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로움의 동굴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나만 홀로’라는 생각을 떨치고 외로움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은 외로움의 동굴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석 명절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살피고, 마음으로라도 표현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가까운 포도밭에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하하시느라 아주 바빠 보였지만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줄기와 가지, 잎사귀를 찬찬히 살펴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매를 조심스레 받쳐 들고 가위로 포도를 따줍니다. 한 송이씩 손에 들고 공동체에 계신 어른들을 찾아가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가져다드리는 꾸러기들의 모습에서 뿌듯함과 즐거움이 엿보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야기'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꾸러기들이 교구를 가지고 재현하는데 좋아하는 동물이 등장해서인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역할은 목자였고 그다음은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로 역할놀이를 했습니다. 꾸러기들 옷에 양털처럼 솜을 붙이고 수건으로 양 모자를 만들어 쓰고 양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은 길 잃은 양이 없다고 했더니 목자를 참 잘 따라다닙니다. 꾸러기들이 목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마리 한 마리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재워주고 깨워줍니다. 목자는 양들이 자는 동안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지켜줍니다. 길 잃지 않고 잘 따라온 양들은 맛난 먹거리도 받았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뜻을 충분히 알 것 같은 한주였습니다.

풀밭에는 숙 뱀이 지나가고, 빨간 그네밑에는 둥그런 벌집이 매달려 있고, 떨어진 밤을 줍고 하루도 심심할틈 없는 학교생활입니다.

월~금까지 수업교실을 옮겨가며, 운동장을 뛰며, 쉬는시간 짹짹 즐기는 깡통차기, 구슬치기는 얼마나 건강한 모습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 배움과 가르침

시작되는 추석연휴를 기다리며 학교도 좋고 집도 좋다는 외침을 들으며 긴 연휴속으로 친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을 강조하는 편치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의 만남의 축복을 빌어주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좋은 영향을 주는 명절이 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평온했던 한주 어린이였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이번 주간에는 지리산 여행을 위한 준비와 실행으로 보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에는 전체 학부모 교육으로 멋쟁이학교 졸업생과 학부모님을 모셔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견들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3학년 혹은 그 이상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열심히 지리산을 흥미진진한 경험담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지리산 여행을 가지 못했기에, 2학년도 혹여나 후배들 앞에서 뒤쳐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멋쟁이 전체가 여행을 간다는 것에는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마법이 있나 봅니다. 내려가는 버스는 한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는 파티장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춘향전의 배경인 광한루원에 들러 그 유명한 오작교도 보았고, 숙소에서는 근처 계곡에서 끝여름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하늘이 어둑해질 때까지 한껏 맛보았습니다. 지리산 등반 과정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동원끼리 서로를 챙기며 몸상태와 물건을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에 달하는 오르막길, 남한 내륙의 꼭대기인 해발 1915m의 천왕봉, 그리고 오르막길에 준하게 시간이 걸렸던 내리막길.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멋쟁이들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한결 더 가까워보였습니다. 시간차는 있었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멋진 경험을 하고서 하산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오고 난 다음날엔 근육통으로 어기적거리는 선생님들과 멋쟁이들이, 학교교육의 필수과정인 피드백을 함께 모여 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연휴로 가정학습기간입니다. 모두 좋은 추석을 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모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함께 사는데 ”

요즘 사랑방 가족들 어찌 지내시는지요?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모든 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인데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무림리는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웃음소리, 나집사님과 멋쟁이들이 함께 노작하는 모습. 늘 최고의 맛으로 섬기는 베다니 요리사님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만난 고맙고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결혼 초기에 읽은 모 목사님이 쓰신 사모학이란 책에서 읽었던 잊혀지지 않는 글이 몇 개 있습니다. 사모는 유난히 가깝게 하는 교인들을 조심하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뒤야한다. 그 책에 수많은 주의사항과 갖춰야할 덕목들이 많았었는데 왜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사모학책 기준으로보면 전 분명 낙제점 받았을 문제 사모입니다. 사랑방초기에 함께 계시던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심각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사모님 왜 교인들하고 자꾸 어울리세요. 멀리서 지켜보시고 거리를 두셔야 권위가 서지요. 나중에 목사님 목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어렵고 힘들게 들렸는지 오랫동안 혼자 끙끙 거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스스로 정리를 하고 직접 부딪칠 요령으로 남편에게 물으니 “당신이 행복한대로 행동하면 돼.” 그 당시 이렇게 쉽고 명쾌한 답을 하는 남편이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요. 저는 아마도 큰 교회 사모님 보다는 작은 교회 특히 공동체교회 사모가 그래도 좀 더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아시고 이쪽으로 가라 하신 거겠지요.

‘함께 사는 거 어렵지만 쉬운 이야기’ 이 말은 사랑방가족이면 너무 익숙한 말이지요. 함께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내 안에 계속 품고 살아간다는 거 진짜 진짜로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나 혼자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성경말씀을 외우곤 하는데 로마서 12장은 공동체 안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제가 방향할 때 바르게 세워가도록 돕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무림리에서 사랑방가족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월영 사모  
**함께사는 이야기**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신명기 16장 18~20절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재집권한 탈레반이 교육과 고용에서 남녀 분리 방침을 발표했다. 탈레반 고위인사 와히둘라가 13일 이슬람 율법을 전면 적용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판지시르에서 최소 20명의 민간인 살해 정황 포착,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아프간 여성들은 부르카, 히잡 강요에 SNS를 통해 저항하고 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디아코니아자매회>

- (1) 60인 시설 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처럼 잘 보호해 주시도록,
- (2) 제8대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원장으로 선택된 노종숙 언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위탁받은 성직을 잘 감당하도록,
- (3) 21명의 디아코니아 가족공동체 언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정신을 실천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추석 명절에 오고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들
- (2) 주일에 있을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모임을 위해
- (3) 멋쟁이학교 지리산 여행 안전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태풍 찬투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긴장했지만, 경로가 한반도 아래쪽을 지나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포천에는 쾌적한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한국부르더호프에서 3명의 형제자매들이 사랑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멋쟁이학교는 수요일부터 지리산 당일코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듬별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하루 만에 천왕봉까지 오르는 코스라 쉽지 않았지만, 좋은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베다니 주방식구들이 사용하는 쉽터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방 식구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탄생하면 좋겠습니다. < 정재훈 목사 >